

News

5대銀 정기예금에 뭉치돈... 올 166조 증가 '사상 최대'

동아일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2일 기준 821조1826억 원으로 집계
지난해 12월 말(654조9359억 원)에 비해 166조2467억 원 급증, 2021년 연간 증가액(22조5283억 원)의 7배가 넘는 규모

벼랑끝 중소기업 대출이자 깎고 원금 감면 검토

동아일보

은행권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낮춰 주고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섬
금리 상승과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이 흑자 도산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조치

비은행권 차주 5명 중 1명, 번 돈 70% 빚갚는데 쓴다

한국경제

올 한 해 가파른 금리 상승이 이어진 가운데 번 돈의 70% 이상을 오롯이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사람들의 대출 비중이 상반기 기준 전체의 1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선 이런 고위험 대출 비중이 21.5%에 달함, 기준금리가 연 3.5%가 되면 이 비중은 각각 18%, 2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우리금융그룹,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 유력

머니투데이

우리금융지주가 M&A(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
2000억원 이상의 인수금액을 제시한 후보군 가운데 금액, 조건 및 거래종결력 등에 앞서 매각자 측이 배타적 협상권을 다음주쯤 부여할 것으로 관측

주요 손보사, 내년 자동차보험료 2%대 인하

조선일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폭을 2%대로 결정
자동차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는 일제히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2% 내리기로 함

여행자보험 경쟁 격화... 패키지 서비스도 봇물

전자신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136만1200여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8만8800여건에 비해 4.7배 이상 증가
방역조치 완화로 여행객이 늘어 보험료 수입도 797억원으로 전년 동기 37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증권사 부동산PF대출 연체율 8% 돌파...2금융권 비상

아시아경제

김성주 의원실 자료 따르면 증권사 중심으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
인·허가 지연과 원자재 값과 금리상승 및 미분양 증가 탓, 주택·상업용 건물 등 중 소형 사업자 대출 많아 부실 위험

R공포에 현금방파제 '울인'... '트리플 A' 기업도 2배 증액 액셀

서울경제

포스코·LG화학·이마트 등도 줄줄이 수천억 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
'유동성 공급' 최대한 나서지만 저신용 기업은 자금조달 양극화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